

##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2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 대표전화 : 1577-0675

1993년 9월1일 치유자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가톨릭이념의 실천으로 분산형으로 808호에 호스피스과를 신설 복사골에서 호스피스를 시작한지 2011년으로 16년이 되어갑니다. 강산이 변해도 한번 하고도 조금 변할 수 있는 시간이고 청소년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1995년에 호스피스병동을 개설시는 9병상으로 간호사 3명이 근무를 하였고 89년도부터 호스피스자원봉사자교육을 받은 16명과 함께 호스피스활동을 하였습니다. 호스피스 전담의와 체계적인 자원봉사를 하기위해 자원봉사자 일지도 작성 하였습니다. 2000년 희년을 맞이하여 5개의 사랑의 무료병상을 증설하여 19병상으로 확대되어 부대시설로 회의실, 자원봉사자실, 상담실, 간이주방, 임종실, 가족 휴게실이 있었고 5월부터 사별가족 연미사 시작되었다. 2006년 6월 본원 5층을 리모델링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데 1인실 1개, 3인실 1개, 4인실 2개 총 12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부대시설로는 후원회 사무실, 요셉방(임종방), 목욕실 및 가족실, 상담실 등이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의료진의 회의를 통해 매주, 매월의 행사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1995년부터 시작된 월 2회 팀모임은 환자와 가족을 둘러싼 환경을 호스피스팀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미술치료는 주 1회 화요일에 하고 있으며 26년의 임상미술치료의 경험으로 본 병동에서 4년전에 어



머님을 보내드린 사별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환우들과 가족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주1회의 음악치료를 하고 있다.

사별관리는 1995년부터 사별가족편지발송과 1996년의 사별가족모임은 월1회 매월 첫 금요일에 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는 첫금요일마다 추모미사를 봉헌하고 있다. 2007년에는 사별가족지지팀(자원봉사자 4명, 사회복지사 1명, 호스피스조정자)을 구성하여 월 1회의 회의와 사별가족 미사 및 가족모임에 동행하고 있다. 가족모임은 연중계획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5월의 야유회인데 가족들이 제일 기다리는 시간이기도합니다. 현재 사별가족 모임을 통해 두명의 자원봉사자를 배출 했는데 원목실 수납안내봉사와 호스피스 병동의 음악 치료사로 활동중에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와 가족을 위해 1995년에는 후원회를 결성하여 경제적인 도움과

## 기관소개

환자의 생신잔치등의 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27명의 자원봉사자들은 헌신과 사랑의 봉사자로 호스피스병동 설립이래 16년동안 자원봉사자로 활동해 온 사람이 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호스피스의료진은 교수 1명과 간호사 7명, 사회복지사 1명이 근무하고 있다.

자원봉사자 교육은 1994년이래 2010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인천, 부천지역의 호스피스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2007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보건복지가족부의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으로 선정되어 호스피스기금을 받고 있다.

매년 170명의 환우들이 이세상에서 삶을 마치고 새로운 삶의 나라로 여행에 호스피스팀의 의료진들은 동행하고 있으며 오늘도 아름다운 동행을 하기위해 화이팅을 외쳐본다.

